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6호 【루게 제23403호】 주체100(2011)년 3월 27일(일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국립연극극장에서 경희극 《산울림》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국립연극극장에서 경희극 《산울림》을 관람하시였다.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솟아올라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웅장화려한 극장에서 아버지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민족번영의 전성기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당과 군대의 책임일꾼들인 김정은동지, 리영호동지, 김기남동지,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김정각동지, 김양건동지, 박도춘동지, 최봉해동지, 태종수동지, 문경덕동지, 주규창동지,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와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의 일꾼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송고한 리상, 불굴의 투쟁력을 생동하게 잘 보여주는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명작 경희극 《산울림》은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과 커다란 감화력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며 새로운 창조와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출연자들은 세련된 연기형상으로 1960년대의 시대상을 방불하게 그려냄으로써 세기를 앞당기며 질풍같이 달려온 천리마시대 우리 인민들의 정신적높이를 진실하게 펼쳐보여왔다.

관람자들은 오늘의 우리 생활, 우리의 리상, 우리의 정서와 모든 면에서 일맥상통한 감동깊은 공연을 보면서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했던 천리마시대의 선구자들처럼 우리 당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돌격전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로동당시대 인간들의 혁명적인 정신세계와 투쟁기풍, 고상한 도덕풍모를 그대로 펼쳐보인 사상예술성이 높은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보면 볼수록 심오한 생활진리를 가슴깊이 새겨주는 시대의 명작인 경희극 《산울림》은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정신력에 불을 다는 특출한 매력과 견인력을 가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런것으로 하여이 작품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친근한 길동무로,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국립

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경희극 《산울림》을 가지고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수도 평양과 지방들에서 303회의 공연을 진행하여 수십만명의 군중들에게 보여주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문학예술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최고의 기록을 세운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이것은 당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혁명적예술인들만이 이룩할수 있는 자랑찬 성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국립연극단의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온 나라를 산울림열풍으로 들끓게 할데 대한 당적과업을 훌륭히 집행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강성대국건설대전역으로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는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은 커다란 감화력과 인식교양적의의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교양수단으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경희극 《산울림》과 같은 명작들을 더 많이 창조하고 공연활동을 과감히 벌려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국립연극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들의 예술창조활동의 거점인 국립연극극장을 최상급문화전당으로 일떠세워주시고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공연을 보아주시며 위훈의 한길로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추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공연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천만심장에 애국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춤으로써 선군시대 혁명적예술인의 본분을 다해갈 불라는 맹세를 다

본사정치보도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앙양을

전반적인 공사실적 1.2배로 장성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선군청년총동원대회 호소문에 호응하여 산악같이 펼쳐나선 청년돌격대원들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에서는 세 칠길과 도로, 수십만㎡의 골짜기를 건설하여 1호발전소완공에 필요한 물동을 집중수송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또한 돌격대에서는 2호발전소 언제쌓기와 물길굴뚝기를 적극 내밀면서 3호발전소건설작업을 위한 준비를 본래 일제 다그쳐 자랑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전반적인 공사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배로 뛰어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을 다그쳐 빨리 끝내야 하겠습니디.》

현장연합지휘부와 정치부 일꾼들은 공동사설의 전투적 과업을 청년돌격대원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주면서 그들모두가 청춘의 힘과 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더 좋게

향해북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아래 공장들에서

이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도당위원회와 지도밑에 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의 일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자재로 마련한 원료한 제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곳 일꾼들은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원들에 나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관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고있다. 또한 현지지도단원들을 본보기로 하여 다른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

화를 다그치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일꾼들은 현지지도단원들에서 설비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정방산종합식료공장에 나간 일꾼들은 빵과 파자, 변성국수를 비롯한 식료품의 가지수를 늘이도록 하고있다.

일꾼들은 사리원기초식품공장 사리원정방식료생산협동조합에서 새로운 건강생산공정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사업과 《정방제》를 비롯한

실히 필요한 비누와 종이 등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지방의 원료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기 위한 원료기지 조성사업과 유휴자재수매사업에서도 많은 성과가 이룩되었다.

지방공업공장들을 만반하도록 돌려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 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관리국안의 일꾼들과 도안의 지방공업공장들의 로동계급의 힘있는 투쟁에 의하여 도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차 소비품생산실적이 1.2배로 오르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특파기자 김 천 일

농촌을 힘있게 지원

평양시에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농사에 필요한 물자등을 영농공정에 앞세워 우선적으로 보장해 줄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농촌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말바닥 평양시에서는 군중적으로 마련한 16만여점의 중소농기구들과 5만6000여점의 각종 부속품들을 영농전투로 들끓는 시안의 여러 농장들에 보내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농촌을 적극 지원하여 농사를 잘 짓도록 하여야 합

날바다를 내밀며 제방이 뺏어간다

황해남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에서 황해도간석지건설 적극 추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 제힘을 믿고 펼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메시지를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대고조의 진격로를 열어

나아가 합니디.》

황해남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와 황해도간석지건설은 많은 면적의 새땅을 얻기 위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방대한 공사를 황해남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 로동계급에게 총체로 맡겨주시고 설비와 자재보장을 비롯하여 공사를 앞당기는데서 제기되

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무한히 고무된 기업소의 전체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신약같이 펼쳐나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기업소의 일꾼들은 모든 역량을 공사에 집중시키고 공정조직과 전투지휘를 대담하고 용이 크게 해나가고있다. 특히 황해도의 지질조건과 흙제방과 들이끼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공법을 받아들이고 로력과 기계수단을 총동원하여 공사속도를 최대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기업소의 당, 행정일꾼들이 현장에 나가 힘있는 정치사업을 벌리면서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불려일으키고있다.

봄철에 들어와 공사속도는 날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공사를 힘있게 다그쳐 도로를 개척해놓은 기계화사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공사의 추풍전선을 맡아 본대를 보이고있다. 사업소의 자동차운전사, 굴착기운전공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철세없이 흙과 돌, 자갈을 운반하여 공사실적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지난 시기 대자연개조전투장마다에서 위훈을 떨친 양화, 황해남도간석지건설사업소, 청대건설사업소, 선박사업소의 로동계급과 10월28일청년돌격대원들도 장성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일손을 다그치고있다.

기업소건설자들의 불굴의 투쟁으로 황해도간석지 제방은 날바다를 내밀며 무성해 뺏어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 승 철



특파기자 최 수 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드립니다.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불분별주의의 초강도강행군길을 위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본을 휩쓴 대규모의 지진과 해일로 재일동포들이 입은 막심한 피해를 신속히 헤아리시어 50만US\$의 위문금을 피해동포들을 위해 보내주시었습니다. 대규모의 지진과 해일로 가족들과 재산을 잃고 절망속에 허덕이는 피해동포들을 구원해주시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막대한 위문금을 보내주시었으니 총련일군들과 피해지역 동포들을 비롯한 재일 동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고마운 은총에 북받쳐오르는 격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조국을 향해 감사의 큰절을 올렸습니다. 강성대국건설총동맹의 진두에서 새로운 비약의 활로를 모색 열어나가시며 미제와 남조선피괴조진 세력들의 광란적인 전쟁도발을 선군의 위력으로 짓 무개버리시고 민족의 자주적언과 평화로 수호하시는 그로써 분망하신 속에서 또 재난당한 재일 동포들을 사랑의 품에 안아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헌신이 인자하신 친어버이이십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지진피해를 입은 동포들을 구제해주시고 재생의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시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호모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도호우와 건조의 넓은 지역을 순식간에 폐허로 만든 대전제로 2명의 총련동포가 동통현장에서 숨지고 지진과 해일발생후 10여일이 지난 오늘날에도 시신을 찾지 못하고 행방을 알수 없는 동포가 250명을 넘습니다. 대전제로 총련 지방본부회관들과 우리 학교건물들이 큰 손상을 입었으며 수많은 동포살상집이 파괴되거나 휴식되고 상공인들은 절묘의 파손과 영영의 중단으로 막심한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악몽과 같은 대지진과 해일에 이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강한 여진,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사고이래 최악의 원자력발전소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의 심각한 확대 그리고 추위와 정전속에서 피해 동포들은 공포와 불안의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위문금은 한 없이 귀중한 소생의 생명수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문금을 보내주시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접한 피해지역의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일제시 선대들이 일본 도호우지방에 정음으로 끌려와 마소와 같이 후사당하면서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었던 민족수난의 역사와 88년적인 간도대전제때에 조선사람들이 무리죽음을 당한 참사를 되새기면서 오늘날 만인이 우러르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으로 사는 데없는 영광과 행복을 온몸으로 걸맞았습니다. 지금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피해지역 총련조직과 동포들을 위해 막대한 위문금을 보내주신 한량없는 배려에 부풀어 오르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장군님께 화와 달이 다하도록 끝까지 충직한 결의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귀중한 위문금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송고한 뜻을 깊이 새기고 피해동포구원활동을 전조적으로, 전동적으로 더 힘있게 벌립으로써 공화국의 해외조선인 총련의 위력을 과시하며 동포사회의 단합을 이룩해 나갔습니다.

우리들은 피해지역의 총련동포들은 물론 민단과 민족의 동포들에게도 위문금이 뜨겁게 가닿아 함께 새 재해를 가시 위한 투쟁에 신심을 가지고 나서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그 언제나 친어버이사랑의 손길을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과 장군님에 대한 헌없는 애후과 호모의 마음이 각계각층 재일동포들의 가슴가슴에 새겨지도록 하였습니다.

총련은 대규모지진과 해일에 의한 막심한 재해와 방사능오염의 확대로 피해지역 복구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될것을 예견하여 피해지역 조직과 동포들을 돕는 집단적상부상조활동을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총동으로 열기 위한 90일운동의 중요과업의 하나로 틀어쥐고 이 사업에 상공인들과 세세대 동포들을 적극 발동시킴으로써 동포피해자운동의 중요한 요구인 민단과 민족동포들과의 민족단합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굳세면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이별 메일수록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보다 반식같이 다지고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애국애족운동에 박차를 가해 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에 기초하여 총련일군대요를 사상의적연연체제로 더욱 굳게 다지고 총련 각급 조직들을 새로운 전성기에 맞는 체모를 갖추도록 꾸러 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일심단결의 힘과 난관들과의 정진력으로 대전제를 이겨내고 총련을 와해시키려고 날뛰는 내외반동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총련을 굳건히 고수하고 발전시키었습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최상최대의 념원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잃어넘치는 충정을 담아 인류의 태양이시며 사회주의강성대국들의 상징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육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혁명가의 품모

누구에게나 혁명선배가 있다. 혁명선배를 존대한다는것은 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한 오랜 혁명가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투쟁업적을 귀중히 여기며 계승해나가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선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대하며 위하는것을 숭고한 의무로, 영예로 여기는것은 주체혁명의 혁명가의 도덕판이며 훌륭한 품모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의 요구이며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도덕의미이다.》

지나온 정치사는 혁명선배 존대문제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라는것을 실증하였다. 일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변질과 붕괴는 혁명선배들의 헌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혁명선배들을 모독함으로써 사람들속에서 사상적동요와 혼란을 조성하고 혁명의 반동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위업을 막말하게 방탕할수 있는 문을 열어준것이 추악한자들의 배신행위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들과 동료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적극 내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정치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도 그렇듯 분망하신 속에서도 항일혁명투사들을 만나시어 오늘 우리 인민이 이렇게 제나라를 찾고 행복하게 살게 된것은 항일혁명투사들이 수평님을 모시고 피어린 투쟁을 한 결과라고, 그래서 우리는 혁명선배들을 존경하며 잊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따듯이 보살펴주시는것은 혁명선배존대의 숭고한 모범으로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혁명가라면 누구나 혁명선배들을 사랑하여야 하며 그들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발전시키어나가 한다고, 이것이 혁명가로서의 영예와 존엄을 지키는 길, 혁명위업을 승리로 이끌어나가는 길이라고 강조하시었다. 혁명선배존대문제와 관련하여 비록 그것이 사소한 문제라도 절대로 소치치하지 않으시는 분이 도덕의 리의 최고화신인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이시이다. 오래전 어느 한 단위에서 있었던 일이다. 일부 사람들이 나이상으로 나 경력상으로 볼 때 비조차 할수 없는 한 오랜 지식인의 크지 않은 결함을 두고 말밤에 울리고있었다. 이 사실을 아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동무들이 자기 성장하여 온 과정을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결함없는 사람이란 없다고, 누구에게나 크고작은 차이가 있지 결함은 다 있다고, 그 결함을 고쳐주는것이 동지이라고, 동무들이 지금 자기의 선배를 모라보는것 같은데 그래서 안된다고, 선배를 아끼고 배려하는것이 우리 인민의 의무라고 하시었다. 혁명선배를 존경으로 존대하고 옹호하는것은 인간관계에서 안되는 커다란 량심의 가책을 받았다. 혁명이 진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혁명선배에 대한 도덕의리도 끊임없이 승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완성인 인민간사회의 주인인 인간사회의 발전을 의미하며 인간관계에서 도덕적완성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사업과 생활에서 무한히 관심적이고 고지식한 사람만이 혁명선배에 대한 존경심을 지닐수 있고 진정한 배척 혁명선배를 위할수 있다는것이 생활의 진리이다. 자기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기에 앞서 혁명선배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해놓았는가를 헤아릴줄 아는 인간이 수양된 참인간이다. 혁명선배에 대한 존대는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존대이다. 혁명선배를 존경하는것은 존대하는 훌륭한 모습은 후대들을 위한 많은 교과서로, 거울로 된다. 대중이 따르는 인간은 깨끗한 마음과 의리를 지니고 혁명선배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위해주는 참된 인간이다. 본사기자 백영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제 100 (2011)년 3월 25일 일본 도쿄



항일혁명선열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는 참관자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비단천에 어린 뜨거운 사랑

경애하는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인민들에 대한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오직 한마음의 땀을 뚫고 따르며 고난의 천만리를 헤쳐나가는 데있어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온 세상이 부러워할 행복한 생활을 가져야 마땅해주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게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일성동지의 정치에서 기본적인 특징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주제 89 (2000)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나라의 믿음직한 비단천생산기지인 념련전직공장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한껏 달아오른 구내길을 걸으면서 공장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추억깊이 새겨안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어 여러 직장에서 들려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직기앞에 다가서서 비단의 질과 색깔을 가능해보기도 하시고 직포공들의 일출세도 보아주시면서 고은 천을 더 질 좋게 짜라고 고무격려하시었다. 「혁명동지들이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시려 노동자들의 일터마다에 헌신의 자욱을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각각양색의 아름다운 비단천들이 전련되어있는 제품전본실에서 더 많이 생산하고 그이께서는 색동천과 검모시천을 보시고 이 천은 어린이들에게 해일할 옷감천일것이라고, 이런 천은 념련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천부구의 심정대로 상점에 여러가지 비단천을 많이 보내주어 시집, 장가가는 청년들이 상점에서 이것을 주시시오, 저것을 주시시오 하고 또 어머니가 시집갈 딸을 데리고와서 첫날옷감을 고르며 하면 아주 좋아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이다. 인민이라는 부름을 마디마디에 떨리시며 인민생활을 두고 그로써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하루드며 일군들모두는 헌애이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를 령도자로 모신 비단천은 영광과 환희를 가슴속에 더 깊이 간직하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들이 좋아하는 비단천 생산을 급격히 늘여 결혼하는 처녀, 총각들과 생일을 순순, 일흔흔을 맞는 노인들에게 비단옷과 비단이불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걸린 문제들을 몸소 풀이 해주시었다. 그리고 떠나시기에 앞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비단천을 공급함으로써 인민의 사랑을 받는 공장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장으로 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었다. 진정 가까운 앞날에 우리 인민들을 남부러울 없이 잘살게 하고 모든 면에서 편안히 내세우실 숭고한 뜻을 안고 계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어가시는 위대한 사랑의 길은 몇천몇만리된다. 인민생활향상의 해일 올해에 단 하여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맹렬 추위로 아랑곳하지 않고 남부러워병공과 평양북도인의 공장들을 비롯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을 위한 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시었다. 그 별들의 자욱자욱을 심장에 새겨서 천만근민은 절세의 이상적인 열화같은 청승의 목소리를 합치고 또 합했다. 오래전 어버이수평님과 항일의 념련성영 김정숙어머님께서 그로써 사랑하신 인민을 마음에 안고 인민을 위해 온 마음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시야말로 이 세상 끝까지 따르며 받들어 모실 자애로운 선군령왕이시이다. 본사기자 백영민

항일혁명투쟁의 전환적계기를 열어놓은 요연구회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 령도파라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해 총동맹의 열풍을 거세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천만근민의 가슴마다에는 백두산위인들께서 안겨주신 백절불굴의 공격정신이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뜻깊은 태양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인류가 낳은 절세의 위인인 어버이수평님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모신 헌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심장을 뚫으며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겨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조선혁명의 령도는 백두산위인들의 평도밀에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에서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자랑스러운 로정으로 빛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76년전에 있는 력사적인 요연구회의를 통해서도 우리는 한평생 말받아온 공격정신으로 언제나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진출 위인상을 다시금 배수로 걸맞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요연구회의는 인민혁명군이 유격투쟁을 사수하기 위한 전략적방어로부터 전략적공격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적계기로 되었다.》

요연구회는 항일의 나날 가장 준엄하였던 1930년대 전반기에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곳이다. 바로 여기에서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 혁명을 새로운 양상으로 이끌어 올리기를 위한 전략적방향을 제시 하시었다. 지금도 조용히 키키울이면서 려파 난관이 중중첩첩 걸쳐들던 1930년대 중엽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유격군을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

진출할때 대한 새로운 전략전술적 방향을 제시하시던 백두산전진군대의 우렁우렁하진 음성이 들리오는듯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이미 이룩한 고귀한 성과와 경험들에 기초하여 혁명투쟁을 가일층 확대발전시켜야 할 절박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이 임무는 우리들로 하여금 제한된 적들의 유격군을 떠나 보다 광활한 지대로 진출하여 대규모적인 유격군을 조직전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투쟁을 보다 적극적인 단계로 발전시켜야만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지성원에 의거하여 적들에게 커다란 정치적손실과 경제적 손실을 줄수 있으며 당장건설사업과 통일전선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을것으로 빛나고있다. 전략적방어로부터 전략적공격으로 유격군을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로

이러한 정세하에서 좁은 울타리에 둘러앉아 유격군을 보위하는데만 급급한다면 혁명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혁명력량을 보존할수 없을것은 물론 적들과의 싸움에서 패배로 빠질수밖에 없었다. 조선혁명을 좌절시켜버리고 일제가 유격군에 대한 봉쇄에 신중을 곤두세우고있을 때인 주제 24 (1935)년 3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요연구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여시고 해방지구형태의 고정된 유격군거점들을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 진출하여 적극적인 내부투쟁 활동을 벌일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방향을 제시하신것은 적들을 대고 있어서 청천벽력파도 같은 타격이였다. 이것은 오직 조선혁명을 조선사람사상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체적신념과 절대불변의 의지를 지니시고 투철한 공격정신으로 역경을 순조롭게, 화를 복으로 전환하시시는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제시할수 있는 방향이였다. 일제의 악랄한 유격군봉쇄책동을 새로운 전략적조치로 격파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요연구회의 방향관찰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유격군해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요연구에서 군민연대회를 여시고 유격군해산의 전략적방향을 해설해주시었다 유격군인민들이 적에게 옮겨앉는 방법과 이 사업에서 류의할 점 그리고 새로운 활동지대에서의 투쟁방향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동맹의 각 현과 혁명조직들에게 특파원들을 파견하시어 유격군해산사업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지도록 군대와 인민들에게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시었다. 한편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적극적인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는 길에서

어느해 삼복철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성전적개발합기업소를 찾으시었다. 념련 제일 무덤고 빌기 많이 오는 시기에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 머나먼 길을 달려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들의 성장로동계급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격경으로 열매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았다고 도리어 그들의 건강을 염려해주시면서 로동자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었다. 맘에 젖은 아전복이 마를 사기도 없이 오면 시간에 걸쳐 생산현장을 돌아보신대 이어 기업소에서 자체로 꾸리고 하시면서 지니시였던 높은신 뜻을 항상 가슴에 새겨두고 빛내어 나가실 자신의 결심을 힘있게 되풀이하시었다. 정녕 요연구에 나래친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준엄한 단군을 타격하고 이 땅에서 이어이 강성대국의 찬란한 태양을 앞당겨주시려는 철칙같은 신념과 의지, 강철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신 선군의 그 길은 몇천몇만리이며 쌓으신 업적은 그 얼마나이런가. 위대한 선군조선의 기상이 온 누리에 펼쳐지고 인민의 행복이 활짝 꽃피우고있는 오늘의 자랑스러운 현실은 어버이수평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아오신 선군혁명명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오시며 총동맹의 선군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열렬한 투쟁을 이어나가신 장군님께서서도 그 길은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리금분

어느해 삼복철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성전적개발합기업소를 찾으시었다. 념련 제일 무덤고 빌기 많이 오는 시기에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 머나먼 길을 달려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들의 성장로동계급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격경으로 열매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았다고 도리어 그들의 건강을 염려해주시면서 로동자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었다. 맘에 젖은 아전복이 마를 사기도 없이 오면 시간에 걸쳐 생산현장을 돌아보신대 이어 기업소에서 자체로 꾸리고 하시면서 지니시였던 높은신 뜻을 항상 가슴에 새겨두고 빛내어 나가실 자신의 결심을 힘있게 되풀이하시었다. 정녕 요연구에 나래친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준엄한 단군을 타격하고 이 땅에서 이어이 강성대국의 찬란한 태양을 앞당겨주시려는 철칙같은 신념과 의지, 강철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신 선군의 그 길은 몇천몇만리이며 쌓으신 업적은 그 얼마나이런가. 위대한 선군조선의 기상이 온 누리에 펼쳐지고 인민의 행복이 활짝 꽃피우고있는 오늘의 자랑스러운 현실은 어버이수평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아오신 선군혁명명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오시며 총동맹의 선군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열렬한 투쟁을 이어나가신 장군님께서서도 그 길은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백영민

어느해 삼복철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성전적개발합기업소를 찾으시었다. 념련 제일 무덤고 빌기 많이 오는 시기에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 머나먼 길을 달려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들의 성장로동계급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격경으로 열매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았다고 도리어 그들의 건강을 염려해주시면서 로동자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었다. 맘에 젖은 아전복이 마를 사기도 없이 오면 시간에 걸쳐 생산현장을 돌아보신대 이어 기업소에서 자체로 꾸리고 하시면서 지니시였던 높은신 뜻을 항상 가슴에 새겨두고 빛내어 나가실 자신의 결심을 힘있게 되풀이하시었다. 정녕 요연구에 나래친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준엄한 단군을 타격하고 이 땅에서 이어이 강성대국의 찬란한 태양을 앞당겨주시려는 철칙같은 신념과 의지, 강철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신 선군의 그 길은 몇천몇만리이며 쌓으신 업적은 그 얼마나이런가. 위대한 선군조선의 기상이 온 누리에 펼쳐지고 인민의 행복이 활짝 꽃피우고있는 오늘의 자랑스러운 현실은 어버이수평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아오신 선군혁명명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오시며 총동맹의 선군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열렬한 투쟁을 이어나가신 장군님께서서도 그 길은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백영민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대중운동의 성과는 방법론이 결정한다

향산군당위원회 사업에서

대교조의 열풍이 세계에 일고있는 향산군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그 어디를 가보아도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뜻있는 2012년을 사상, 기술, 문화의 세개의 꽃을 필멸히 휘날리며 자랑스럽게 맞이 할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전투적 기상이 차넘치고있다.

군 당 위 원 회 에 서 는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자욱이 새겨져있는 군안의 평도업적단위에서 이룩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오늘을 인민생활향상대전에서도 대중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리기 위한 좋은 방법론을 찾아주고 이 사업을 보다 심화시키고있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방법론을 잃게 세우는것은 모든 사업을 실속있게 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됩니다.»

그러면 군당위원회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하는 방법론은 무엇인가. 군당위원회의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평도업적이 깃들여있는 단위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모든 단위의 앞장에서 계속 세차게 지퍼올리도록 하고있다.

연제인가 군당책임비서 류광복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여있는 어느 한 단위의 일꾼과 대중운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어주었다. 그때 그 일꾼은 이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한시름놓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것이였다. 마음의 무게를 잠시나마 늦춘 그 일꾼의 말을 들으면서 군당책임비서는 많은것을 생각해 보았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평도업적이 깃들여있는 단위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계속 앞장서나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의 이런 결심은 당시의 군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린 결심이었다.

당시 군안의 평도업적단위들이 모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런 실정에서 군의 모든 단위에서 대중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여나가자면 평도업적단위들이 결의목표들을 더 높여 정확히 이 운동의 앞장에서 계속 기발하고 나가야 하는 단위들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했다.

그후 군당위원회는 군당위원회 부장이상 일꾼들과 군급기관 책임일꾼들을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평도업적이 깃든 단위들에 내려보내어 더 높은 결의목표를 내걸고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을 제때에 일반화하도록 조직 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군당위원회의 대중운동에 대한 지도에서 주목되는 점은 또한 이 운동의 주관부서인 선전선동부서는 물론 조직부서 비롯한 군당위원회의 모든 부서, 모든 일꾼들이 이 사업에 한결 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는것이였다.

군당위원회는 정초에 한해서 사업방향을 정할 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관련한 각 부서와 일꾼들의 사업방법을 정확히 고쳐주고 한해사업을 마감할 때에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어떻게 떠밀어 주었는가를 중요한 항목으로 놓고 총화사업을 하고있다.

하기에 군당위원회 선전비서 계몽찬동무를 비롯한 책임일꾼들과 위원회의 부서장들 모두가 부서들에서 진행할 대중운동 지도사업을 1월부터 빈틈없이 작전하고 힘차게 내밀고있다.

군당위원회책임일꾼들의 경우에는 두개이상 즉 협동농장 한 개 단위와 공장이나 교육, 보건,

문화기관등의 한개 단위를 맡아 대중운동을 지도하고있다.

지난 3월 중순 상서협동농장 제4작업반에서 군안의 협동농장당일꾼들과 초급일꾼들이 참가한 가운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관련한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때에도 군당위원회 비서 김찬후동무는 자기가 고정분공반은 단위에서 진행되는 보여주기 사업이 훌륭한 실효를 거두게 하기 위하여 이 단위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군당위원회의 모든 일꾼들이 아래에 자주 내려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에 상서협동농장, 군소배전소, 청원리관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이 대중운동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군당위원회의 대중운동지도에서 주목되는 다른 하나의 좋은 점은 이 운동을 주관하는 부서와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부단히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는것이다.

여기에서도 특히 이 사업을 직접 맡아보는 담당부서의 역할을 비상히 강화한것이다. 담당부서의 실무적자질을 부단히

높여주고 그를 다른 사업에 동원시키지 않고 오직 대중운동과 관련한 사업에만 전심전력 하도록 하였다.

연제인가 군당책임일꾼은 북선현협동농장 제2작업반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위한 사업을 자신이 맡고 담당부원과 함께 자주 나가 대중운동의 방법론을 하나하나 배워주며 꾸준히 이끌어주었다. 그 과정에 담당부원의 실력이 부쩍 올라 갔고 그것은 그대로 실행이 구현되어 이 작업반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한해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대중운동에 대한 지도에서 단정적방향이 없었다. 이곳 군당위원회일꾼들처럼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는 좋은 방법론을 정확히 찾아내고 일관성있게 내민다면 성과는 확실하다. 결국 대중운동의 성과는 좋은 방법론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향산군당위원회의 사업이 바로 이것을 강조해 주었다.

본사기자 리 중 석

남포항만건설사업소 초급당위원회 일꾼들

그들이 선택한 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화혁명수행에서 우리 당이 내세운 중심목표는 온 사회의 인내리화입니다.»

올해 초 남포항만건설사업소에서 일이다.

초급당비서가 곧 공부하러 떠나는 소문은 빨리도 들었다.

사업소초급일꾼들이 심심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도 그럴것이 영웅담일꾼이 온 지 1년 남짓이지 않았지만 많은 일을 해왔던것이다. 후방공급사업단 부속 500이상의 구역을 파서 20여년만에 처음 보는 소출을 얻었다. 돼지, 개구리, 닭 등을 키우는 종합축사를 건설하여 고기생산도 늘었다.

남파다 말까지는 후방공급사업은 끝났다는 정치사업이 되어 사업소에서는 지난해 인민

경제계획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끝내었다.

그런 당일군을 초급일꾼들이 어찌 따르지 않을수 있겠는가. ... «꼭 가야 합니다?» 하고 묻는 초급일꾼들에게 초급당비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시대는 발전하고있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르면 배워야 하거니.»

초급당비서는 학교로 떠났다.

며칠 후 사업소에서는 초급일꾼 모임을 있었다. 올해공급사업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완수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연단에 나선 지배인 리영철 동무는 말하였다.

«지난해 우리는 많은 일을 하였습시다. 하지만 성과속에 고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산건설분야에서 비약적인 전진을 가져오려면 지금의 기술과 지식, 경험에 만족할수 없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초급당비서동무도 학교로 간것이요...우리 당에서는 온 사회의 인내리화를 문화혁명의 중심목표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올해 사업소의 문화혁명의목표에서 기본은 우리들의 지식수준을 한해더 높여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각 부속이 특히 향산건설사업소의 첨단지식을 쌓는것입니다.»

사실 지배인의 이야기는 초급당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문제였다.

올해 초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공급사업에서 제시된 과업완수를 위한 투쟁목표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에 반영하면서 지난해 시기의 문화혁명결의목표수행정형에 대하여 깊이 분석해보았다. 그 과정에 문화혁명이라고 하면 많은 경우 생산문화, 생활문화회화법과 대중체육, 군중예술행동으로만 대처하여온 편향에 대하여 주의를 돌려주었다.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놓고 볼 때 초급일꾼들의 지식수준을 높이는 데 상당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향산건설사업소의 초급당위원회는 이 점을 잘 알고있다. ... 초급일꾼모임에서는 매월, 매주 학습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업소에서는 학습의 날 운영이 실속있게 진행되고있다. 그에 대한 초급일꾼들의 반응은 아주 좋다. 여기에 학교에서 공부하고있는 초급일꾼이 보내주는 정치, 경제, 국제문제 등 각 분야의 최신자료까지 첨부하여 학습에 대한 초급일꾼들의 흥미와 요구는 더욱 커지고있다.

당일꾼이 앞장서고 초급일꾼 모두가 함께 걷는 길!

그것은 보다 높고 새로운 문명을 향한 길이었다.

본사기자 림 현 숙

평양신발공장 사출직장

3대혁명붉은기 평양신발공장 사출직장 부문당위원회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고있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의 보다 높은 요구를 대담하게 제기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까.»

부문당위원회에서는 격조적인 선진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술혁명결의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부문당위원회에서는 당선들과 초급일꾼들에게 현시대의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의 시대이며 과학과 기술을 모르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누구나 기술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 투쟁하도록 하고 있다.

부문당위원회에서는 기술혁명수행을 위한 한단계의 결의목표가 수행된 다음에는 그에 대한 총화와 평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다음단계의 결의목표수행에도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켜 기술혁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있다.

직장의 초급일꾼들은 기능공들속에 들어가 기술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 주며 적극적인 정치사업을 확실히 하고있고 벌려면서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때 다 친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펴 주어 그들이 기술혁신에 있는 지혜와 정열을 남김없이 바쳐가도록 하고있다.

사출직의 평가장치를 감속기장치, 전열장치를 우리 식으로 새롭게 개조할 목표를 내세우고 기능공들인 현용범, 신오석, 김경현동무들은 그 사업에 모든 정열을 쏟아부으면서 모진 투쟁을 벌려왔다. 특히 직장장 김경현동무는 설비점검보수체제를 철저히 세우고 많은 예비부속품을 확보하는것과 함께 국가과학원 연구소들과의 연계밑에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해 창조적인 사색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부문당위원회에서는 기술혁명결의목표수행에서 발휘되는 기능공들의 긍정적인 소용돌이를 바로보고 대중을 일방적으로 앞장서게 하는 사업을 잘 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최 영 길

방도를 가르쳐주고 내밀 때

북천군 송정리당위원회

다른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도 방도를 가르쳐주고 내밀 때 훌륭한 결실이 이루어진다. 북천군 송정리당위원회 일꾼들의 사업을 놓고 말할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얼마나 힘있게 벌어지고 있느냐! 열매를 맺는가 하는것은 우리 당일꾼들이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어떻게 불러일으키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고리형순환생산체제에 의거하여 농업과 축산물생산을 더 높여야 할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지난 시기 농장에서 고리형순환생산체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밭과 밭이랑이 좁은 밭을 보았지만 밭당미는 이룩한 것인데 만족하지 않았다. 당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면 일부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한 것이다.

리당위원회는 고리형순환생산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자기 단위를 당창건결의사항 가장 앞선 단위로 만들 결심

밑에 이 사업을 방법론있게 밀고나갔다. 그 하나가 방도를 가르쳐주고 내밀 때 결의목표수행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게 한것이다.

리당위원회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기술혁명결의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 2중3대혁명붉은기 제 5작업반을 고리형순환생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도적인 본보기단위로 만들 결심밑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고리형순환생산체제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려면 작업반들을 선진과학기술로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

혁신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본 리당위원회는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더 밀고나갔다.

작업반원들이 선진농기술에 정통하니 고리형순환생산체제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기반한 단들이 쏟아져나왔다.

그 하나가 집집순먹이침가 제였다. 여러가지 짚에 깔려 대신편이 만든 먹이침가 제들을 배합하여 집집순에게

먹이면 고기생산을 높이면서도 알곡먹이소비를 50% 줄일수 있다. 그리고 폐설물로는 집 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한다.

결국 알곡배배, 버섯기르기, 집집순기르기, 유기질비료생산이 하나로 연결된 순환고리형생산체제가 구축되면서 농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농작업생산을 늘일수 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현지에서 이들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농장전진 보여주기회를 조직하였다. 이것은 일꾼들과 농장원들을 분발시키는 계기로 되었다.

제 2작업반과 제 6작업반, 축산작업반에 새로운 고리형순환생산체제가 확립되었다. 이 나날에 제 1작업반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위한 사업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더 밀고나갔다.

작업반원들이 선진농기술에 정통하니 고리형순환생산체제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기반한 단들이 쏟아져나왔다.

본사기자 손 영 희

기술혁신의 열풍이 불어온다

이것이 송정리당위원회에서! 여기서 기술혁신의 열풍이 불어온다. ...

본사기자 림 현 숙

다들 놀아

다들 놀아. 다들 놀아. ...

이것이 송정리당위원회에서! 여기서 기술혁신의 열풍이 불어온다. ...

본사기자 손 영 희

구체적으로 라산하고 대중을 발동하여

북포구역 류현남새전문협동농장 일꾼들

심기까지 걸치곤 하는 조건에서 그럴만도 하였다. 그러한 일꾼들에게 농장의 책임일꾼은 자제로 농사를 짓는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득력있게 해설해주었다.

그의 말에 공감을 표시한 일꾼들모두가 창발적인 의견들을 내놓았다.

그후 일꾼들은 자제로 농사를 짓기 위한 당면한 영농전투를 짜고들었다.

는같이영농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가을을 벼만저들이가 갈라나면 농작업이 또 또라토르수리정비를 제정 끝나는 동시에 낫알일기와 봄남새모기주기준비사업을 집중적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영농물자들을 수송하고 봄철에 남새밭갈이는 필수품이던 부림소로 하여 연휴를 극력 절약하였다가 트랙토르로는 갈이를 외닥다 끌었다.

이러한 방법은 실천에서 큰

은을 나타냈다. 그에 맞게 농장일꾼들은 트랙토르를 현대식 말아 부속품들로 구해다주고 운전수들이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을 느끼지 않게 잘 도와주었다.

바쁜 모내기철에도 농장의 일꾼들은 당면한 영농전투를 위한 작전을 바로보고 대중을 적극 발동하였다. 지난 시기 일부 작업반들에서는 논둑짓기를 앞세우지 못하여 모내기를 일성대로 내비는데서 지장을 받은 하였다. 그로하여 판리위원회에 종종 지원력을 요구 하곤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장의 일꾼들은 농산작업반들이 나가 풀이 깎는 논둑짓기 작업을 집중적으로 도와 주었다. 이에 감동된 남새작업반의 농장원들도 일꾼들을 따라나섰다. 논둑짓기작업이 선행되니 씨뿌리기와 모내기를 일성체로 더욱 빠르게 내밀수 있게 되었다.

특파기자

북천군 읍협동농장에서

북천군 읍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흙보산비료생산을 계속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흙보산비료는 좋은 유기질비료입니다.»

이 농장의 작업반들을 돌아 보면 흙보산비료생산기지들에 산더미처럼 쌓인 니란이 눈길을 끈다. 그 어느 작업반의 니란더미를 보아 류당리집집순이 실한다. 일찌기 부수 없었던 이런 현실을 보며 어떻게 좋으면 니란을 많이 갖는다고 묻으면 사람들은 몸을 들어 노력한 보람이라고 한다.

그렇지만도. 원래 이 농장일대에는 니란이 일찌기 매정되어있었다. 그러므로 하여 농장에서는 해마다 많은 니란을 캐어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였다. 지난 기간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여 농사에서 제 기능을 본 이곳 사람들에게 있어서 니란은 더없이 귀중한 원료였다. 하지만 그 량이 제한되어있어 올해는 사정이 달랐다.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이제 니란원천이 없는것만큼 부식토로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자고 하였다. 물론 부식토로 흙보산비료를 생산해도 되지만 그 량이 제한되어있었다. 모든 일이 그러한것처럼 흙보산비료원료를 마련하는 문제도 일꾼들의 노력에 따라 그 성과가 파우되었다.

어느날 저녁이었다. 작업반들에서의 농사차비정형을 알아보고 사무실로 향하던 한희중

북천군 읍협동농장에서

판리위원장은 어느 한 판리회에서 결을 멈추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여 누구인지 정확히 알수는 없었지만 여러명의 사람들이 땅에 전지발을 비쳐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농장일꾼들이었다.

(무슨 일인가?)

이런 의문을 앞세우며 그곳으로 다가가는 데 마침선동무가 그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성공입니다. 성공! 보십시오. 이곳에 이렇게 훌륭한 니란이 묻혀있으니까요. 그 니란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사실 농사차비가 시작되던 그날부터 그는 니란원천을 찾기 위해 로인들도 만나고 자연구적특성으로 니란이 있을것이라고 짐작되던 땅도 파보곤 하였다. 일부 지역엔 니란이 있었지만 너무 깊은 곳에 있었는것은 물론이요 깊지 못하였으므로 매장량도 보잘것 없었다.

농장일대에는 니란원천이 더는 없다는 소문이 전해지니 사람들은 부식토로 흙보산비료를 생산하면서 도시의 전거품을 실어들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니란원천을 찾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 그들은 니란원천을 찾아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니란 매정까지 저러기 면대다가 땅을 캐어 파헤쳐야 캐낼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농장일꾼들은 절이 류당리 좋은 니란이 매장되어있다는것을 알게 된 이상 조건이 불리하다고 물러

북천군 읍협동농장에서

이렇게 결심한 그는 당조직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제 5작업반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던 날이었다. 태양열을 효과있게 리용하게 되었을뿐아니라 온도와 습도조절장치가 잘 세워진 흙보산비료생산기지를 본 다른 작업반초급일꾼들은 생가되는 점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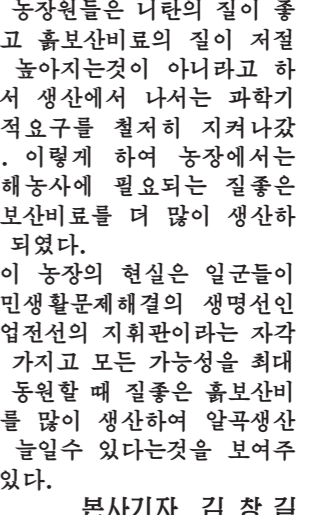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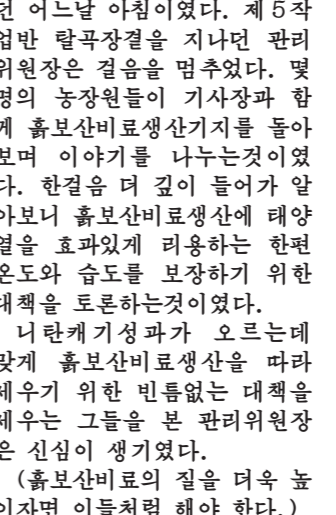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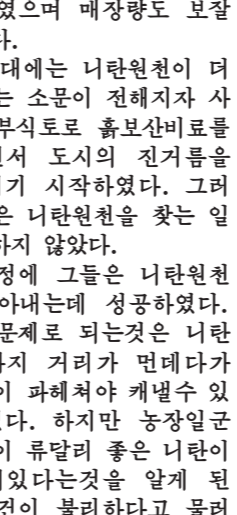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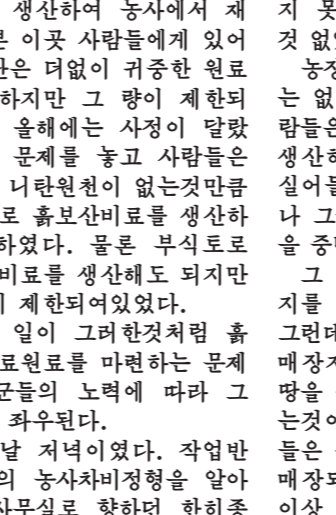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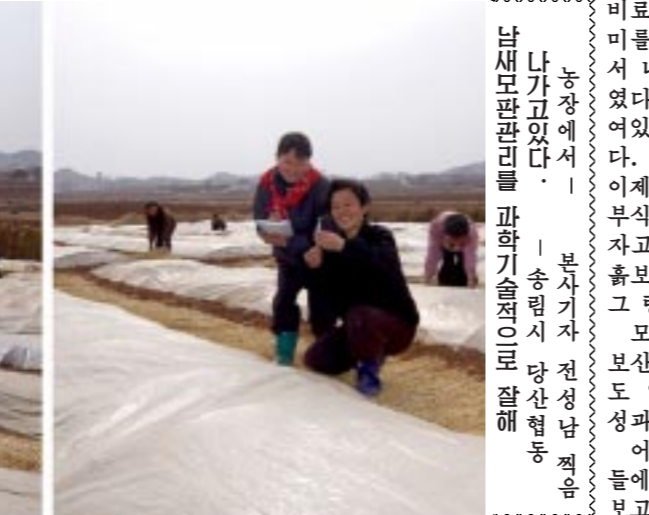
이날 보여주기사업의 실효는 대단히 컸다. 다음날부터 작업반내급일꾼들모두가 집중을 니란을 많이 캐는데 맞게 흙보산비료생산기지를 보다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농장에서는 흙보산비료생산기지를 잘 꾸리는데 이어 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었다.

농장의 모든 작업반들에서 집중을 흙보산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워낙이 열매가 떨어지신 농장원들은 니란의 질이 좋다고 흙보산비료의 질이 저절로 높아지는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생산에서 나서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갔다. 이렇게 하여 농장에서는 올해농사에 필요되는 질 좋은 흙보산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게 되었다.

이 농장의 현실은 일꾼들이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인 농업전진의 지휘관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가동할 때 질 좋은 흙보산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김 창 길



기발이 되고 불길이 되리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노동계급

2012년으로 향한 올해의 결승전의 앞장에서 달리는 김책의 로동계급이 1. 4분기 철강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힘찬 돌진전을 벌이고있다. 애로와 난관은 적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김책의 신념이 어떤것이고 김책의 실천력이 어떤것인가를 보여줄 때 심과 락판에 넘쳐 오늘도 대고조의 앞장에서 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지금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판에 넘쳐 당을 따라 대고조의 힘길로 용기뿔뿔, 기세충천하여 내달리고있습니다.』

내보라치는 김책의 구내길로 두 사람이 걸어가고있다. 그들은 련합기업소지배인과 당책임일군의 그 말에 지배인이 결음을 멈추었다.

『홍수입니다. 우리 김책이 올해에도 대고조의 앞장에서 달리는 기발이 되고 불길이 되어 공격전을 벌려봅시다.』

그러면서 지배인은 용광로직장으로 들어섰다. 그곳에서는 지난해보다 훨씬 높아진 올해 선철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일군들의 협의회가 진행되고있다.

『동무들, 레년에 없이 들어닥친 추위는 우리 김책로동계급의 의지를 시험해보기라도 하려는듯 완강하게 도전해나오고있다. 그러나 우리 김책로동계급의 의지를 결코 꺾을수 없다. 김책의 신념, 김책의 본래, 김책의 실천력이 어떤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자.』

그러면서 지배인은 올해 선철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방도는 선철 1당 원료와 연료의 소비기준을 낮추는데 있다고, 그러므로 기술력향상을 촉진하며 대중적기술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지고 호소하였다. 원료와 연료의 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한 기술혁신안들이 수없이 제기되었다. 그 기술혁신안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올해 선철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를 통이 크게 세워나갔다. 바로 그러한 때 알뜰, 구단, 광생산현장에 나간 당책임일군은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전투를 벌리는 기술자들과 함께 밤을 지새워갔다.

『설계도면을 다시 그려야 하겠습니까.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생산능력전진으로 호소할 우리 김책이 지난 시기보다 생산능력을 2배로 높이는 것만으로도 아저 만족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알뜰생산과 구단광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 대한 방도를 제기하였다.

책임일군들이 이렇게 생산직장의 일군, 기술자들과 밤을 새워가며 대혁신의 나래를 펼쳐갈 때 생산단위들에 나간 당위원회의 일군들은 화신성직직사업으로 밀고나갔으며 강철 2직장에서 대고조전동기투자를 만들어놓고 매일 혁신적성과를 기록하며 생산적양상을 일으켜나갔다.

어느날 석회배소로직장에서 뜻하지 않게 한밤중에 어는 한 전자기 고장났다. 직장장은 이미 기술자들이 퇴근하였

으므로 날이 밝으면 고장난 전자기에 대한 수리전투를 벌려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날밤 현장을 돌아 보면 직장장은 불었다. 어떻게 알고 달려나왔는지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벌써 수리전투를 끝내가고있었던 것이다.

소결 1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날도 하루계획을 150%로 넘쳐 수행한 고대성원들에게 직장장이 취면서 고대준비를 하라고 하였다. 그때 고대를 책임진 초급일군이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계획을 150%로 넘쳐 수행하였다고 만족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결광생산을 부쩍 높여 용광로직장에서 하루계획을 200%이상 수행할수 있게 보장해주시고 결의하겠습니다.』

직장장은 가슴뜨거워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것이 벌써가 되어 『현관부름, 현관단위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기풍이 새해 첫아침부터 고대마다에 차넘치기 시작했다.

『우리 김책은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생산능력전진에 앞장서고 있는 기발이 되고 불길이 되어 공격으로 밀고나갔으며 강철 2직장에서 대고조전동기투자를 만들어놓고 매일 혁신적성과를 기록하며 생산적양상을 일으켜나갔다.』

어느날 석회배소로직장에서 뜻하지 않게 한밤중에 어는 한 전자기 고장났다. 직장장은 이미 기술자들이 퇴근하였

고장난 전자기에 대한 수리전투를 벌려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날밤 현장을 돌아 보면 직장장은 불었다. 어떻게 알고 달려나왔는지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벌써 수리전투를 끝내가고있었던 것이다.

소결 1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날도 하루계획을 150%로 넘쳐 수행한 고대성원들에게 직장장이 취면서 고대준비를 하라고 하였다. 그때 고대를 책임진 초급일군이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계획을 150%로 넘쳐 수행하였다고 만족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결광생산을 부쩍 높여 용광로직장에서 하루계획을 200%이상 수행할수 있게 보장해주시고 결의하겠습니다.』

직장장은 가슴뜨거워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것이 벌써가 되어 『현관부름, 현관단위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기풍이 새해 첫아침부터 고대마다에 차넘치기 시작했다.

『우리 김책은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생산능력전진에 앞장서고 있는 기발이 되고 불길이 되어 공격으로 밀고나갔으며 강철 2직장에서 대고조전동기투자를 만들어놓고 매일 혁신적성과를 기록하며 생산적양상을 일으켜나갔다.』

어느날 석회배소로직장에서 뜻하지 않게 한밤중에 어는 한 전자기 고장났다. 직장장은 이미 기술자들이 퇴근하였

고장난 전자기에 대한 수리전투를 벌려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날밤 현장을 돌아 보면 직장장은 불었다. 어떻게 알고 달려나왔는지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벌써 수리전투를 끝내가고있었던 것이다.

소결 1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날도 하루계획을 150%로 넘쳐 수행한 고대성원들에게 직장장이 취면서 고대준비를 하라고 하였다. 그때 고대를 책임진 초급일군이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계획을 150%로 넘쳐 수행하였다고 만족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결광생산을 부쩍 높여 용광로직장에서 하루계획을 200%이상 수행할수 있게 보장해주시고 결의하겠습니다.』

직장장은 가슴뜨거워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것이 벌써가 되어 『현관부름, 현관단위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기풍이 새해 첫아침부터 고대마다에 차넘치기 시작했다.

『우리 김책은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생산능력전진에 앞장서고 있는 기발이 되고 불길이 되어 공격으로 밀고나갔으며 강철 2직장에서 대고조전동기투자를 만들어놓고 매일 혁신적성과를 기록하며 생산적양상을 일으켜나갔다.』

어느날 석회배소로직장에서 뜻하지 않게 한밤중에 어는 한 전자기 고장났다. 직장장은 이미 기술자들이 퇴근하였

창조적인 임팩트와 노력의 기적을 놓치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호흡기내과강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학부문에서 중요한것은 의사들의 의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일니다. 의사들의 의술이 높아야 제기되는 환자들을 제대로 더 잘 치료할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최중증상태에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호흡기내과강좌에서 김일성종합대학 무상치료제 혜택속에 건강을 회복한 통천군의 한 영예군인이 되었고 있다.

메일이 광범하게 합병병 다발성폐고혈압에 전신면역기능까지 침입하여 혈액순환기능이 저하되어 호흡이 어렵고 가슴이 답답하며 두가지를 저지던 환자였다.

하지만 병원의 치료 일군들은 어떤 치료법과 방법으로 놀라운 현실을 가져왔는가.

최중증상태에서 환자의 상태를 극단으로 몰아간 병원에서 두가지를 저지던 환자였다. 몸 시간을 다루며 진행되는 사형의 회에서 두가지 문제가 초점으로 되었다. 하나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 단계에서 합병증을 탐한 것과 관련하여 생긴 여러 가지 병원에 대한 치료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원인에 대한 약물의 적용방법에 관한 문제였다.

두가지 병원을 가지고있는 이런 환자의 치료에서는 원인을 없애는데 필요한 약물적용은 일시 뒤로 미루고 밝혀진 다른 병원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는것이 기성판으로 되고 있다. 그 판례를 그대로 따른다면 환자의 몸은 병조가 팽배한 조건에서 상태는 더 악화될 것이고 그렇다고 원인을 없애는데 필요한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그것 역시 환자상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세울수 없었다.

이런 정황에서 전치화, 김광명, 양현민, 김장길 등 호흡기내과강좌의 의사, 고혈압은 전치한 협의 끝에 환자를 살려내자면 기성판에서 대담하게 벗어나야 한다는 데 대해 일치하게 견해를 모았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활동에서 결심은 육망만으로는 내릴수 없다. 높은 의학과학기술과 경험, 창조적인 의사와 탐구에 의해서만 내릴수 있다.

이렇게 되어 두가지 병원에 대한 치료와 동시에 병원에 되었다.

집체적인 지혜와 과학적인 탐사에 기초한 치료전술은 적용 후 3일째 되는 날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환자의 체온은 고열상태에서 미열상태로, 가래배출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일반상태로 점차 좋아졌다.

큰 기대를 가지고 중앙병원 문턱을 넘어섰지만 병상상태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후시나 하려는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갈 줄 몰랐던 환자의 어머니는 감사의 눈물을 하얗게 흘렸다.

기적같은 생명의 현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환자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 지겠다는 믿음이 확고히 서서 기성판에서 대담하게 벗어나야 한다는 결심을 제대로 내리고 치료전술을 과학성있게 세운다는 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들은 다음단계치료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내어 림상실현에 적용하였다.

일반적인 근육주사나 정맥주사의 방법으로서는 환자의 병조해부와 그 주위에서 병원체를 없애는데 필요한 약물의 유효농도를 도저히 보장할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되었을 때였다. 이들은 환자의 가슴벽을 통해 병조해부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방법과 미립자흡입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결심은 곧 실천에 옮겨졌다. 그리하여 종전의 기성방법이 포함된 4가지 방법이 림계적으로 적용되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전신상태를 개선하고 면역기능을 높여 주기 위한 영양보강사업이 강화와 병원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환자의 소생과 건강회복을 위해 이 병원의 의료일군들과 통천군안의 일군들과 주민들속에서 발원된 가지가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다. 환자는 이런 사랑속에 떠날줄 모르는 수심일만에 건강을 기본적으로 회복하였다.

이 병원의의료일군들의 치료 과정은 천태만상의 질병치료에서 고정적식화된 결과 기성판에서 벗어나 창조적으로 사색하고 탐구하며 실현해나갈 때 우리 제도의 귀중성과 같음을 뜨겁게 느끼게 해주는 기적같은 현실을 안아올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오 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석탄공업대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석탄공업대회 참가자들이 26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자 존엄높은 김일성조선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총동맹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온 크나큰 공적과 자부심을 안고 만수대인덕에 오른 대회참가자들은 나라의 석탄공업발전

에 앞장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석탄공업발전의 열정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었다.

그들은 석탄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치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고 나자 갈 길을 환히 밝혀주셨으며 그 실천을 위해 불면불휴의 고되고 신통을 바치신 경에하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 그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를 진정하고 삼가기를 드려드렸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제의 태양으로 영현히 높이 모시고 경에하는 김일성동지의 선군로동자대국건설에서 새로이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혁명적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절을 앞두고 망을 띠치는 진귀한 꽃들

인류공동의 명절인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중앙식물원 국제전신식물원에 뿌려나온 진귀한 식물들이 앞을 띠고 있다.

경에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선물식물들이 이례로운 풍경을 펼쳐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주제 54 (1965)년 4월 인도네시아는 방문한 위대한 수령님께 수카르노대통령이 꾸민 꽃바구니를 세게적 명화로서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고있다.

의 존함을 모시고 온 세상에 만발한 태양의 꽃 김일성화화는 이 꽃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흠모심을 더욱 강렬하게 해주었다.

계절을 앞당기며 활짝 피어난 꽃나무들 가운데는 경에하는 수령님의 위인상에 매혹되어 질바브레공화국 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가 선물로 드린 희귀한 산호병술나무도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주제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려는 일본 안고 중국과 이탈리아, 일본의 각계 인사들이 성의껏 마련하여 그에게 올린 콘꽃자란, 털바삭꿩, 동백나무 등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 사람들

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일군들과 제이동포들의 축원의 마음이 어떤 면에서나, 큰꽃철쭉, 영산홍, 라부루드 소담하게 꽃이 맺히고있다.

푸른 잎위에 특이한 모양의 꽃을 피워올린 개불나무와 일일초. 가지가 보지 않을 정도로 하얀 꽃들이 피어나 불가지 나무, 사시절 푸르름을 자랑하는 빈랑나무를 비롯한 선물식물들이 그윽한 꽃향기를 풍기고있다.

태양절을 앞두고 한껏 망을 띠치는 진귀한 꽃들은 위인 칭송의 아름다운 화현을 이루며 더욱 만발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어린 선물식물관을 잘해나가고있다. 신 총 혁 적음

영국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 일행 출발

【평양 3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영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최태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일행이 26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완수 최고인민

회의 부의장과 학교비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공사참사가 전송하였다.

청춘원을 잘 리용하여 배천군 주정리에서 자체로 일떠세운 청춘원을 잘 운영하여 농장원들의 위생문화사업에 이바지하고있다.

청춘원 목욕탕은 온천을 리용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더욱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본사기자

청춘원은 농장원들과 그 가족들이 편리한 시간에 리용할수 있게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되고있다. 농장원들은 하루일을 마친 저녁이면 이곳을 찾아 피로를 풀며 새날의 혁신적성과를 굳게 약속하고있다.

스위스 켐핀스키호텔그룹 총사장일행 귀국

【평양 3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레도 윌트루 스위스 켐핀스키호텔그룹 총사

장 일행이 26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과학기술중심에 승리의 지름길이 있다

인민생활향상대고조의 해인 뜻깊은 올해에 2. 16 과학기술상수상자들의 대모가 또 벌어졌다.

얼마전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제 8차 2. 16 과학기술상 수여모임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강령대국건설에서 새로이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혁명적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2. 16 과학기술상수상자들을 만나 보고

자, 기술자들이 진격의 기수가 되기를 바라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더불어 수여된 2. 16 과학기술상!

남들이 쉽게 지닐수 없는 과학기술부문의 최고의 영예를 지닌 그들에게는 어떤 날보다 비결이 있는 것인가.

2. 16 과학기술상수상자인 평안북도간석지건설협회사 기술자 서현길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수백년만에 들어닥친 강한 해일로 8 800정보의 대개조간석지가 하루아침에 옥실하게 파괴되었을 때 버지나라 다른 구간들은 내놓고라도 3호방조제의 마무리 구간을 놓고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천치를 돌아 본 외국 수리공학박사까지도 말했던 나라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막지 못한다 고 하였고 일부 사람들도 당시의 조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머리를 두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무조건 해내

수상자들의 불타는 맹세

우리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대개조간석지건설에서 발휘한 기적, 그 기백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과감한 선진 2개간공사와 대개조간석지내부방공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을 더욱 힘있게 벌려 우리 식의 새로운 건설지침선봉들을 계속 창조해나갔다.

그러하여 가까운 년간에 평안북도대개조간석지건설에서 간석지를 개간하여 조국의 영원한 재부인 땅을 넓혀나감으로써 경에하는 장군님의 강령대국건설상을 현실로 꽃피우게 하는 조건을 마련해나갔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협회사 지면 최 명

이 땅에 발붙이고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대개조간석지건설에서 발휘한 기적, 그 기백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과감한 선진 2개간공사와 대개조간석지내부방공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을 더욱 힘있게 벌려 우리 식의 새로운 건설지침선봉들을 계속 창조해나갔다.

그러하여 가까운 년간에 평안북도대개조간석지건설에서 간석지를 개간하여 조국의 영원한 재부인 땅을 넓혀나감으로써 경에하는 장군님의 강령대국건설상을 현실로 꽃피우게 하는 조건을 마련해나갔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협회사 지면 최 명

우리의 지름길이 있다

우리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대개조간석지건설에서 발휘한 기적, 그 기백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과감한 선진 2개간공사와 대개조간석지내부방공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을 더욱 힘있게 벌려 우리 식의 새로운 건설지침선봉들을 계속 창조해나갔다.

그러하여 가까운 년간에 평안북도대개조간석지건설에서 간석지를 개간하여 조국의 영원한 재부인 땅을 넓혀나감으로써 경에하는 장군님의 강령대국건설상을 현실로 꽃피우게 하는 조건을 마련해나갔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협회사 지면 최 명

메이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조선로 동당 대표를 만났다

【평양 3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당의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조선로 동당 대표를 만났다.

청춘원을 잘 리용하여

청춘원은 농장원들과 그 가족들이 편리한 시간에 리용할수 있게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되고있다. 농장원들은 하루일을 마친 저녁이면 이곳을 찾아 피로를 풀며 새날의 혁신적성과를 굳게 약속하고있다.

태양절을 앞두고 망을 띠치는 진귀한 꽃들

인류공동의 명절인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중앙식물원 국제전신식물원에 뿌려나온 진귀한 식물들이 앞을 띠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만수대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석탄공업대회 참가자들이 26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자 존엄높은 김일성조선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총동맹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온 크나큰 공적과 자부심을 안고 만수대인덕에 오른 대회참가자들은 나라의 석탄공업발전

에 앞장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석탄공업발전의 열정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었다.

과학기술중심에 승리의 지름길이 있다

인민생활향상대고조의 해인 뜻깊은 올해에 2. 16 과학기술상수상자들의 대모가 또 벌어졌다.

2. 16 과학기술상수상자들을 만나 보고

자, 기술자들이 진격의 기수가 되기를 바라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더불어 수여된 2. 16 과학기술상!

수상자들의 불타는 맹세

우리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대개조간석지건설에서 발휘한 기적, 그 기백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과감한 선진 2개간공사와 대개조간석지내부방공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을 더욱 힘있게 벌려 우리 식의 새로운 건설지침선봉들을 계속 창조해나갔다.

이 땅에 발붙이고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대개조간석지건설에서 발휘한 기적, 그 기백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과감한 선진 2개간공사와 대개조간석지내부방공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을 더욱 힘있게 벌려 우리 식의 새로운 건설지침선봉들을 계속 창조해나갔다.

우리의 지름길이 있다

우리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대개조간석지건설에서 발휘한 기적, 그 기백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과감한 선진 2개간공사와 대개조간석지내부방공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을 더욱 힘있게 벌려 우리 식의 새로운 건설지침선봉들을 계속 창조해나갔다.

태양절을 앞두고 망을 띠치는 진귀한 꽃들

인류공동의 명절인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중앙식물원 국제전신식물원에 뿌려나온 진귀한 식물들이 앞을 띠고 있다.

영국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 일행 출발

【평양 3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영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최태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

청춘원을 잘 리용하여

청춘원은 농장원들과 그 가족들이 편리한 시간에 리용할수 있게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되고있다. 농장원들은 하루일을 마친 저녁이면 이곳을 찾아 피로를 풀며 새날의 혁신적성과를 굳게 약속하고있다.

스위스 켐핀스키호텔그룹 총사장일행 귀국

【평양 3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레도 윌트루 스위스 켐핀스키호텔그룹 총사

메이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조선로 동당 대표를 만났다

【평양 3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당의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조선로 동당 대표를 만났다.

청춘원을 잘 리용하여

청춘원은 농장원들과 그 가족들이 편리한 시간에 리용할수 있게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되고있다. 농장원들은 하루일을 마친 저녁이면 이곳을 찾아 피로를 풀며 새날의 혁신적성과를 굳게 약속하고있다.

태양절을 앞두고 망을 띠치는 진귀한 꽃들

인류공동의 명절인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중앙식물원 국제전신식물원에 뿌려나온 진귀한 식물들이 앞을 띠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의학부문에서 중요한것은 의사들의 의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일니다. 의사들의 의술이 높아야 제기되는 환자들을 제대로 더 잘 치료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의학부문에서 중요한것은 의사들의 의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일니다. 의사들의 의술이 높아야 제기되는 환자들을 제대로 더 잘 치료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의학부문에서 중요한것은 의사들의 의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일니다. 의사들의 의술이 높아야 제기되는 환자들을 제대로 더 잘 치료할수 있습니다.』

대자연개조전투장에 새겨지는 값높은 삶과 위훈의 서사시

단천항건설돌격대원들의 문학작품집 《폭풍치며 노래하라 동해의 역센 파도여》를 펼치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렇듯 값높이 내세워주신 것처럼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창조의 진위투사들이 동해기초의 대자연개조전투장에서 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서사시를 자랑차게 새겨가고있다.

단천항건설돌격대원들의 문학작품집 《폭풍치며 노래하라 동해의 역센 파도여》가 발매되고있다. 발간을 모으는 바다의 정복자들의 심장마다에 과연 무엇이 끓고있는가를,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참전지, 위훈자의 값높은 삶을 날마다에 빛나게 새기며 승리의 한길로 폭풍처럼 내달리게 하는가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이 있는 곳에는 품만 한 정서가 있고 정서가 넘치는 곳에는 들끓는 생활과 투쟁이 있다.》

단천항건설돌격대원들의 문학작품집은 창조와 변혁으로 들끓고 영웅적투쟁과 아름다운 생활로 충만한 대자연개조전투의 나날에 창작된 작품들중의 일부인 시조 《해산는 동해기초에서》, 시 《장군님 그 사랑안고 살리라》, 수필 《발걸음에 대한 생각》을 비롯한 수십편의 시조, 시, 수필, 단상, 우화 등으로 묶여져있다.

작품집은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며 길잡이 지시는 파도를 길들이며 변혁의 새 역사를 글지높이 창조해가는 돌격대원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와 정서적향만을 가슴씩차게 담아보게 한다.

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믿음, 그 사랑으로 하여 돌격대원모두의 발걸음에 폭풍이 불었고 하면서 대조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높이 승리의 결승선을 향하여 총정과 애국의 발걸음, 기적과 위훈창조의 발걸음으로 언제나 곧바로 내달릴 필승의 신념을 밝힌 수필 《발걸음에 대한 생각》도 좋다.

오늘의 총진군에 입장을 바치기 전에는 말할수 없는 것이 애국이고 창조와 위훈을 떠나 지닐수 없는 것이 강성대국건설대전 참전지, 위훈자의 값높은 영애이다.

시 《불편하라 다진 그 맹세》, 《심장의 목소리》 등을 보면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열화같은 애국적헌신으로 실천해가며 지켜 쓰러지고나선 순간에 전투속목판에 씌어진 글밭—《동무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신장에 다시금 깊이 새기며 역적같이 방과제를 쌓아나간 단천항건설돌격대원들의 군상이 안겨온다. 《바다의 육탄용사》, 《갈아다우 시가지어》와 같은 시들을 읊어느니만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꽃피우는 길에서는 한몸이 그대로 방과제를 떠맡드는 작은 막들이 되어도 버리고는 행복의 꿈을 품어 버리고는 행복을 웃으며 맞받아 나가는 바다의 정복자들의 각오적인 투쟁정신을 하여 심장이 뛴다.

작품집에는 선군조국의 제부 활여가는 돌격대원들의 보람찬 투쟁속에 더욱 아름답게 흐르는 혁명적정서와 광만도 가득 차 넘친다.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따라 선군천리마라고 행복의 대지를 넓혀나가는 오늘의 대고조적건설운동은 애이던 처녀도 영웅으로 키워내는 활무대라는 정서적충동을 소박한 시어에 담아 생동하게 형성한 시 《우리 집 손녀가 영웅이였소》, 다음날 전투를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 방과제지만을 고르던 잠수공이 뚝딱 잡아낸 큼직한 완공어를 돌리려고 펼쳐진 광만적인 생활속에서 뜨겁게 흐르는 혁명적정서를 노래한 시 《바다의 광만》, 창조의 보람 넘치는 전투장에서는 사나이들이 담긴 돌격대기치맛도 제일이라는 생활의 진미를 펼쳐보인 시 《돌격대기치맛 제일이야》, 강성대국으로 내달리는 우리의 진진 막을 힘 세상에 없다는 투쟁의 진리를 특색있게 형성한 우화 《아이구, 여기에선 안되겠구나!》...

이뿐만 아니라, 일감을 놓고 고서는 서로 양보를 모르고 경쟁을 벌리는 아버지와 아들들, 온전사의 광만적인 생활을 반영한 시 《명나의 부자운전사》며 요람에 잠든 귀여운 자식앞에 장군님께 기쁨 드리는 사랑한 위훈으로 수 놓아진 자서전을 내놓고서 운전대를 틀어잡고 넓은 밤하늘도 웃으며 걷는 아버지의 총명과 애국의 숨결이 뉘뉘는 시 《아버지의 깨끗한 자서전...》, 사슴지는 바다에 한차례 물새를 날려주고 세심장으로 달려갈 때 이제 돌아오면 건설장은 또 어떤 새 모습을 보여주겠는지 마음을 송구스러워 노래

조진보석화는 우리 나라에서 새롭게 창조된 독특한 회화형식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새롭게 창조된 보석화는 형상이 아름답고 정교하여 사람들에게 특이한 정서를 안겨준다.》

1980년대에 미술부문에서는 조진화를 토대로 하여 미술의 모든 종류와 형태들을 시대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 시킬데 대한 당의 주제적미술건설사상을 받들고 미술작품의 사실에 솔직한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심화되었다.

색감문제는 미술작품의 영구성과 그 생명력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의 하나이다.

색감을 비롯한 미술재료의 변색을 막고 영구성을 보장하기 위한 탐구과정에서 여러가지 색깔의 천연물가루를 가지고 독특한 형식의 회화작품들을 창조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 미술가가 불가사로 형성한 미술작품을 보아주시고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셨으며 새로운 회화종류로 발전시킬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셨다. 뿐만 아니라 주제 77 (1988)년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발명가들의 전시회에 이 작품들을 가지고 참가하여 성과를 거두실 있도록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그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창조된 회화형식을 조진보석화로 명명해주고 전문창작집단까지 명명해주셨다.

하늘이 그려낸 회화형식 조진보석화는 평면에 리듬감, 운동감, 기공미감을 나타내는 회화형식과 원리와 함께 들구루라는 재료적특성으로부터 립도 있는 색들가루를 그대로 쓰거나 미술가의 형상적도에 맞게 색들도를 자유롭게 변형시켜 리용하여 작품의 선명감과 생동성을 그대로 보장함으로써 공예의 형상 원리도 적용되게 된다.

이와 함께 천연물가루와 인조보석이라는 재료적공공성으로부터 영구적인 성격, 즉 뛰어난 내구성을 띠는 회화형식이다.

오늘 조진보석화는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단계로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

조진인민군창작사 김 명 수

주제미술이 남북한 화해형식 조진보석화



파외소조활동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폭넓게 다져간다. - 평양 학생 소년궁전에서 - 본사기자 립학락 찍음

우리 나라 19살미만 축구팀 아시아축구련맹순위에서 1위를 차지

우리 나라 19살미만 축구팀이 아시아축구련맹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아시아축구련맹은 지난 3월 9일 런던 웨스턴호텔에서 열린 2012년 아시아 19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 예선경기에 참가할 팀들의 순위에서 우리 나라 팀을 1위에 올렸다.

이 순위는 2010년 아시아 19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 예선 및 본선경기성적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지난해에 진행된 아시아 19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 본선경기에서 우리 나라 팀은 이라크, 바레인, 중국, 남조이 등이 참가하였다.

특히 결승경기에서만도 3골을 넣은 우리 나라의 정일환 선수는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된데 이어 2010년 아시아 축구련맹 최우수청년선수로 되었다.

본사기자

4월 상순 주요남새작물비배관리대책

봄남새작물들의 씨뿌리기는 기온이 5~7°C이상 되는 시기에 진행하여야 한다.

산간지대에서는 봄남새로서 시금치, 숙달, 근대 등을 심을 수 있으며 평간기온이 7°C일 때 붉은봄무우, 순무우를 심을 수 있다.

모로 키워 옮겨심는 참외, 수박, 호박, 오이 등은 평간지에서 4월 상순에 씨를 뿌려야 한다.

모판관리를 잘하여 모를 튼튼히 키워야 한다.

늦에는 모판관리간격을 점차적으로 하며 모판안의 온도를 23~28°C로 보장하여야 한다.

모판안의 습도가 80%이상 높아지면 모가 헛자리면서 모마름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물주기와 환기조절을 잘하여야 한다.

가두배추, 부추, 양파 등 모전에 옮겨심는 모들은 옮겨심기 4~5일전부터 낮에만 박막을 벗겨주고 옮겨심기 2일 전에는 박막을 완전히 벗겨주어 모를 단련시켜야 한다.

봄남새작물들의 옮겨심기를 잘하여야 한다.

가두배추 (1단계), 봄배추, 부추, 양파, 시금치 등 일남새작물들은 평간기온이 6~7°C 이상 되는 시기에 옮겨심는 것이 좋다.

서해안에서는 일남새작물들을 3월 25일~4월초에 모전에 옮겨심어야 한다.

가두배추는 7~8일, 봄배추는 5~6일, 양파모는 3일정도 되었을 때 옮겨심어야 한다.

겨울나인 시금치밭에서는 덤비로주기와 물주기를 진행하여 4월 중순부터 수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양수설비를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가 퇴사기가 시작되면 빨리 덤비로주기와 물주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작업반의 주인 된 본분을 지켜

이것은 누가 보지말진 말없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이룩하게 노력하고있는 숙련된 대성농장 제4작업반 반장 김중현동무에 대한 작업반원들의 찬탄같은 평가이다.

얼마전 이 작업반을 찾았던 우리는 그의 일본새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실리가 나게 꾸민 태양열온실과 수많은 집짐승들이 옥실거리는 집집승우리, 깨끗하게 꾸러진 한족이 달린 목욕탕 등 보는것마다가 우리를 감동시켰다.

그러나 작업반장을 비롯한 농업근로자들의 간결 일본새는 거기에만 비껴져 있지 않다. 작업반에서는 해마다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여 농장적인 알곡생산에서 맨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다.

바로 여기에는 작업반장 김중현동무의 숨은 노력이 깃들여 있는것이다. 지난해에도 김중현동무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새로운 논벼재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깡그리 바치었다.

김중현동무는 작업반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웃음꽃이 피어야 하는 작업반원들에게는 웃음꽃을 피우어 주어야 한다.》 《농사꾼들은 땅을 제 살붙이처럼 아껴야 합니다. 누구나 이걸 명심해야 우리 당이 바라는 실농군이 될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도 이런 자각을 안고 농장법에 성실한 구슬땀을 더 바치고있다.

본사기자

최근 세계 축구기술편천추세

축구부본 지도일군들과 과학기술일군들, 감독, 선수들이 세계축구기술편천추세를 잘 아는것은 나라의 축구기술편천을 빠른 시간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세계적으로 체육기술이 빨리 발전하고있으며 체육종목들의 기복이 끊임없이 갱신되고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축구는 전인종적집단화에 의한 속도경기 방향으로 나가고있다고 분석된다.

지난해 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된 2010년 월드컵경기대회와 올해초에 카타르에서 열린 2011년 아시아축구기술편천대회 등을 통하여 이러한 경향이 더욱더 심화발전되는 과정에 나타나는데 몇가지 새로운 면모를 찾아볼수 있다.

축구기술편천에서 중요한것은 후비육성을 잘하는것이다.

최근 국제축구기술편천을 놓고 보면 제능은 세 세대 축구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2010년 월드컵경기대회 참가선수 736명중 나이가 23살아래인 선수가 123명이고 그중 99명이 기본선수로 출전하여 팀의 경기승리에 기여하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명리하고 높은 기술기교와 창조적이며 적극적인 경기활성을 갖추고있다. 이 대회에서 금축구상과 최우수청년선수상을 받은 도이힐만 선수는 20살이었다. 또 2011년 아시아축구기술편천대회 위지별 최우수선수 11명중 4명이 25살아래의 선수들이다. 이와 반면에 2006년 월드컵경기대회에서 1, 2등을 하였지만 2010년 월드컵경기대회에서는 조별리그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한 이탈리아, 프랑스에는 23살아래 선수가 한명도 없었다. 이것은 축구기술편천과 경기성공을 이룩하는데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후비육성을 잘하는것이 기본조건인 하나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요인의 하나는 경기대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중간지대에서 수적우세를 보장하면서 경기장전반에서 선수들사이에서 호상면제와 협동을 잘하며 수적우세를 효과적으로 발휘할수 있도록 방어진에서는 범구역 앞선전에 중심있는 방어진을 구축하는데도 유리한 4-2-3-1대형이 많이 적용되고있다. 2006년 월드컵경기대회에서는 4-4-2대형은 19개 팀, 4-2-3-1대형은 1, 2등을 포함하여 7개 팀이 적용하였다. 2010년 월드컵경기대회에서는 4-4-2대형을 적용한 팀은 11개로 줄고 순위권에는 3개 팀을 포함하여 4-2-3-1대형을 리용한 팀은 12개로 늘어났다. 올해 아시아축구기술편천에서는 본선경기참가팀 16개중 10개 팀이 4-2-3-1대형을 기본으로 적용하였다.

물론 최근 축구경기들에서 자기 팀의 특징, 경기대상과 정황에 따라 경기대형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있지만 당분간 많은 팀들에서 4-2-3-1대형을 주로 적용하게 될것이다.

공격과 방어이행속도를 높

이것이 현대축구경기에서 승리의 열쇠로 더욱더 중시되고있다. 공격을 하다가 공을 빼앗기면 슛돌림 등이 없으면 공격진 상대팀선수에 대한 재빠른 압박과 공을 넘겨받으수 있는 필진선수들에 대한 분쇄로 연속공격을 철저히 차단한다. 한편 방어선을 구축하고 방어중심을 형성하면서 집단적인 에워싸기로 공을 다시 빼앗아내는 활동을 적극 펼친다. 방어로부터 공격으로 넘어갈 때에는 필수룩 앞선에 있는 선수에게 중앙으로 길게 혹은 대각으로 첫 공명타를 조직하는것이 기본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운영은 오늘날 중요국제경기에서 참가하는 거의 모든 팀들에서 보편화되고있다. 이로 하여 한경기 당 선수들의 이동거리는 급격히 늘어나 현재 우수한 선수들을 놓고볼 때 14km에 이르렀다.

과학적인 정보자료에 기초한 감독들의 두뇌적인 경기승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는것, 명리하고 기동력이 좋은 전력명수들이 팀의 경기운영에서 높은 역할을 커진것, 측면공격의 강화로 공격과 방어활동에서 역활방어의 역할이 중시되고 그들의 육체, 기술적 준비수준이 매우 높아진것, 1:1슛아웃이 없어지고 자기 편 범구역근처에서의 무모한 반칙이 줄어들어 필차에 대한 특이행동이 낮아진것, 먼거리무회전차널기 기술이 개발되고 일반화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최근 세계적인 축구기술편천의 흐름은 축구에서 기본이 빠른 속도와 숙련된 기술기교, 양성된 투지와 인내력이 있다. 이러한 경기운영은 오늘날 중요국제경기에서 참가하는 거의 모든 팀들에서 보편화되고있다. 이로 하여 한경기 당 선수들의 이동거리는 급격히 늘어나 현재 우수한 선수들을 놓고볼 때 14km에 이르렀다.

과학적인 정보자료에 기초한 감독들의 두뇌적인 경기승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는것, 명리하고 기동력이 좋은 전력명수들이 팀의 경기운영에서 높은 역할을 커진것, 측면공격의 강화로 공격과 방어활동에서 역활방어의 역할이 중시되고 그들의 육체, 기술적 준비수준이 매우 높아진것, 1:1슛아웃이 없어지고 자기 편 범구역근처에서의 무모한 반칙이 줄어들어 필차에 대한 특이행동이 낮아진것, 먼거리무회전차널기 기술이 개발되고 일반화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최근 세계적인 축구기술편천의 흐름은 축구에서 기본이 빠른 속도와 숙련된 기술기교, 양성된 투지와 인내력이 있다. 이러한 경기운영은 오늘날 중요국제경기에서 참가하는 거의 모든 팀들에서 보편화되고있다. 이로 하여 한경기 당 선수들의 이동거리는 급격히 늘어나 현재 우수한 선수들을 놓고볼 때 14km에 이르렀다.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고려종이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종이제조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

세나라시기의 종이제조기술은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수준에 있었다.

고려시기의 유적에서는 매우 회고 섬유질이 균일하며 면밀하게 짜여져있는 종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종이표기술과 섬유를 다듬어질하여 그 질을 균일하게 하는 기술이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에로부터 삼천리무강산의 화원속에서 삼여 꽃을 널리 퍼워 우리 민족은 독자적인 꽃문화를 창조하였다.

《삼국사기》에는 고려시기에 대한 기록이 있다. 고려와 리조시기는 꽃을 민간에서 많이 가꾸었다. 여름철이면 우리 녀성들은 봉선화꽃을 짓뎠어 손톱에 물들였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자료에 의하면 세나라시기는 사량이나 존경의 표시로 꽃을 수여하는 풍습이 있었다.

고려시기는 꽃을 판상용으로 많이 썼다. 장식으로 머리모자, 옷 등에 꽃다.

리조시기는 꽃이 남간간의 정을 표시하는데도 쓰였다. 꽃을 사랑하여 우리 민족은 꽃의 상징적의미를 귀중히 여기었다. 집안이나 가족들이 기쁨을 즐겼 때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그 집에 꽃이 피었다.》고 하였으며 젊음과 아름다움을 두고 《꽃같은 시절》이라고 하였다.

우리 민족은 자기의 고향산천에 피어나는 꽃을 사랑하였다.

한 고려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요란한 꽃보다 산속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평범한 꽃이 더 아름답다고 하였다.

리조초기에 이룬 미술가는 꽃이 지닌 상징적의미에 따라 서명을 정하였는데 40여가지의 꽃을 9등급으로 나누면서 매화, 국화 등을 1등급으로 평가하였다. 그것은 눈시리를 맞아서도 시들지 않는 국화 등이 우리 민족의 고상한 품도를 상징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도덕의리움을 귀중히 여기고 참된 인생을 넘길려는 우리 민족은 이처럼 독특한 꽃문화를 만들어냈다.

본사기자

슬기로운 우리 민족의 자랑

고려시기는 610년에 중당 정을 일본에 보내어 고급종이제조기술을 배워주기도 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단마루뽕질로 종이를 만들었는데 이를 백추지라고 하였다. 이 백추지는 섬유질이 고르고 희며 질이 부드러웠으므로 일본의 한 력사학자는 《다른 나라의 어떤 종이와도 비교할수 없을만큼 훌륭한 종이로서 중국에서까지도 천하제일이요 하였다.》고 하였다.

고려시기의 종이는 글을 쓰

고 인쇄하기에 적합하며 질이 고요워 반질반질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웃나라에서는 고려종이를 제일로 여겨 이것을 구하여 글을 쓰는것이 상류층 사람들의 자랑으로 되었다.

중국에서는 우리 종이 질이 좋다고 하여 등피지라고 하였다.

우리 나라 종이는 글을 쓰는 데는 물론 우산과 부채를 만들거나 속옷이나 옷감을 만들 때는 리용되었으므로 과일이나 파울 등을 담은 그릇, 바느질 그릇을 비롯한 각종 장식함을 만드는데도 리용되었다.



슬기로운 우리 인민의 우수한 창조적재능을 깊이 새기고있는 청년대학생들 -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서 -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민족문화건설의 길을 환히 밝혀주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사는 수많은 이름있는 령도자를 기록하고있지만 우리 수령님과 같은 위대한 령도자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전에 위력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발전도상나라들의 민족문화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를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현대 문명에서 멀어져있던 발전도상나라들에 있어서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것은 새 사회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긴박한 문제의 하나였다.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지식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민족경제를 일떠세우려고 해도 기술인재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독립후 적지 않은 발전도상나라들은 민족교육의 토대를 잃었다. 이로부터 발전도상나라들의 수많은 인사는 자주적인 민족문화를 훌륭히 건설하고있는 우리 나라로 찾아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발전도상나라 대령들과 정계, 사회계의 인사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민족문화건설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시였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주체 63(1974)년 3월 아프리카대륙에서 찾아온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도 있었다. 그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운동에서 선구적 역할을 해오던 사람이었다. 그는 나라가 독립된 후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그는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8과 영웅적조선인민장군인 79을께 즈음하여 방글라데슈대학수석상임위원으로서 20일 기념발언을 발표하였다. 발제문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을 모시고 《불패의 조선인민군》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발제문은 글에서 조선인민군

하였다. 그러던중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문화건설성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은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그 경험을 배우려고 우리 나라에 찾아왔던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철을 받은 자리에 그는 수령님께 조선에서 이루어진 민족문화건설경험들을 듣고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있는 문화혁명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심중을 깊이 헤아리시고 우리가 하는 문화혁명은 다른 나라에서 하는 문화혁명과 같지 않다. 우리가 내세운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은 모든 근로자들의 일반적지식수준과 기술적지식수준을 빨리 높이는것이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는 근로자들의 일반적지식수준과 기술적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며 고중의무교육제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렇게 해야만이 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민족인민대군을 키워낼 수 있고 사물들속에서 사대주의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힘써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실중 후아리 부메디엔총리는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민족문화건설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민족문화건설을 비관적으로 계속발전시켜주는 것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와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창조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고, 우리는 지난날의 낮고 반동적인것까지 다 되살려야 한다고,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

민족적인것은 덮어놓고 다 나쁘다고 하고 남의것만 좋다고 하는 허부주의적경향도 반대한다고, 우리는 민족문화유산들 가운데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을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게 계승발전시키고있다고, 특히 우리는 예술분야에서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히 반대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복고주의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시면서 예술이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민족적인 형식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기초하여 창조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또 사회주의적민족화를 건전한 토대 위에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반대하여야 한다고 대대하여 이야기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후아리 부메디엔총리가 관심하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였다.

후아리 부메디엔총리는 자기의 기린없는 질문에 대해 하나하나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높은 식견에 감동되고 탄복하여 수령님께 정말 귀중한 말씀을 들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거듭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그의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담화가 그대로 있어서 얼마나 의의고 귀중한것이었는가 하는것은 그 후 알제리의 민족교육문화발전이 뚜렷이 보여주었다.

후아리 부메디엔총리는 자제로 민족간부들과 지식인, 기술인재들을 키우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교육발전에만 힘을 넣었다. 결과 불과 6~7년 사이에 이 나라에서 대학생은 무려 4배, 초등 및 중등교육기관 학생수는

12배나 늘어났다. 민족문화예술도 놀라보게 발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민족문화 발전에 대한 고귀한 가르치심을 받은 수많은 외국인들중에는 주체 58(1969)년 10월 탄자니아대통령이 우리 나라에 특별히 파견한 이 나라 교육대표단성원들과 주체 63(1974)년 9월 우리 나라를 방문한 바나마기자대리단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날이 갈수록 발전도상나라들속에서 우리의 민족문화발전성과와 경험을 배우려는 열망이 높아가는데서 해아리시고 주체 72(1983)년 9월 우리 나라에서 제1차 팔레스타인 회담과 발전도상나라들의 교육 및 문화장교회의를 열도록 해주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회의참가자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민족문화건설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하게 가르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밖에도 주체 72(1983)년 10월에는 제6차 아시아아프리카연대 및 동맹회의, 주체 75(1986)년 9월에는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현대문학의 역할에 관한 국제토론회를 우리 나라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참가자들에게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정당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전도상나라들의 민족문화건설과 발전을 위해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헤아릴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전도상나라들의 민족문화건설에 쌓아올린 빛나는 업적을 위대한 자주위업의 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조성철

《 불패의 조선인민군 》

방글라데슈단체 불패전 발행

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에서 뒤흔들고있는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군의 무적무강한 힘의 원천은 조선인민군이 특출한 지도사상과 전념으로 무장한데 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사람중심,

수 없는 정치사상적위력에 있다. 자기의 최고사령관인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실성을 기본력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이 전군에 차감되고있다.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힘의 원천은 또한 군인대담과 군사기술적위력에 있다. 김정일령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군은 불패의 장군으로 그 위용을 길이 떨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피델 카스트로동지 미국을 비난

구 바르 혁명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동지가 18일 신문 《그라마》에 《선의의 행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여 미국을 비난하였다.

최근 일본에서 강한 지진과 해일로 해안에서 초래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일본의 핵기술이 다른 일본인 미국의것이며 따라서 일본인들이 당한 재난은 미국정부의 죄악에 의한것

으로 보아야 할것이라고 까뻐했다. 그는 미국집권자가 지금 일본에 대한 이른바 《선의의 행동》으로 어떤 누구를 속이려 하는가고 추궁하였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다그칠것을 호소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세이드 알리 카메네이가 21일 이란전해에 즈음하여 한 TV방송연설에서 나라의 경제발전을

다그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정부가 취할 필요가 있는 조처에 대해 언급하고 그것이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하게

부당한 제재에 맞서나갈 입장 천명

벨라루스와우성 공보국장이 22일 미국과 서방의 제재에 맞서나갈 정부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미국과 서방의 사중적인 경제제재조치에 대응하여 벨라루스정부가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것을 금지시킬 미국과 서방의 개별적인물품의 명단을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그것은 바로 그들이 벨라루스를 반대하는 파괴행위를 일삼고 국제적협조노력을 저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가 외국의 사회정치제재들과 그 대표로서 벨라루스의 일부 정치세력들에 비법적으로 자금을 대주는데 대한 통제를 강화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나토군순찰 증대

아프가니스탄주둔 나토군이 외곽 지역에서의 공격작전에 의해 계속 늘어나고있다. 얼마전 남부지역에서 항공세력의 폭탄공격으로 나토군 병사 3명이 또 죽었다. 이로써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은 나토군병사수는 80여명에 달하였다.

일본에서 피해 계속 확대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과 해일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경찰청은 25일 23시까지 사망자는 1만 102명으로 늘어났으며 행방불명 자수는 1만 7053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해체난을 초래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형태이 계속 악화되고있다. 이 발전소의 2호, 3호, 4호원자로에서부터 나온 수증기같은 물질이 지금까지 1호 원자로에서도 뿜어 나오고있다. 일본정부는 1호 원자로의 로안에 있는 핵연료가 녹아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1호원자로의 외부온도가 한 때 400°C까지 올랐는데 그

것은 내부온도가 1000°C 이상으로 달아올랐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며 그로 하여 핵연료 가 녹았을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내각방장관은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에서 전핵 에측할수 없는 상황이 계속 조성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것은 원자로에서 핵연료가 녹아내릴 바닥에 모이던 원자로바닥이 풀려거나 폭발하여 많은 량의 방사능이 방출될수 있기때문이다. 도쿄전력회사는 24일 발전소 부근의 바다물에서 방사성트크리움-95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핵연료봉의 피복재로 쓰이는 지르코늄이 검출된것과 관련하여 연구대체 원자력연구소의 한 연구사는 《피복재로 가 연료의 열에 의해 용해되고 있다는 증거가 처음으로 발견되었다.》고 말하였다. 3호원자로부구조에 동원되었던 3명의 선원이 기준수치의 1만배가 넘는 방사능피해를 입은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호

와 2호원자로에서도 매우 높은 방사성물질이 측정되었다. 25일 수증기 나토로는 기자회견에서 원자력발전소사고로 인한 사태가 여전히 광범위한것이 우려되고있다. 한편 NHK방송은 24일 17시 5분부터 25일 14시 54분까지 리히터척도로 2.5~6.1의 여진이 12차례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후지산일대에서 15일 리히터척도로 6.4의 지진이 있는 후 최근 한주일동안에 350차례의 여진이 일어났다. 후지산 등 활화산에서 여진이 계속되고있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이것이 화산폭발로 이어질수 있으며 150년마다 찾아온다는 도카이지진대지진의 전조이라는 예측을 내놓고있다. 쇠원들은 도카이대지진이 지리적으로 도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것이라고 전하였다. 이로부터 일본에서 화산폭발과 세로로 다른 대규모지진발생에 대한 우려와 불안, 공포가 커가고있다 한다.

앞날이 없는

▲미국에서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비판과 절망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16일 미연방질병통제센터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2009년에 전국적으로 자살자수가 3만 6 547명에 달하였다고

자본주의 사회

▲미국에서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비판과 절망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16일 미연방질병통제센터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2009년에 전국적으로 자살자수가 3만 6 547명에 달하였다고

앞날이 없는

▲미국에서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비판과 절망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16일 미연방질병통제센터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2009년에 전국적으로 자살자수가 3만 6 547명에 달하였다고

교육 발전에 힘을 넣어

과학과 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교육의 역할은 비할바없어 이르다. 교육을 중시하고 인재들을 육성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진보와 부강번영을 담보하는 열쇠로 된다. 실행계획을 통하여 새 사회건설과 민족의 부흥발전을 보장하는데서 인재와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을 깊이 인식한 발전도상나라들은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다. 현재 이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다.

인디아정부는

경제대국건설의 추동력을 교육발전을 통해 마련하려고 하고있다. 인디아인구의 4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9살미만이라고 한다. 인디아정부는 인재를 대한 교육에 나라의 자금이 달려있다고 보고 이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인디아에서는 의무교육에 관한 법이 정식 실시되었다. 그에 따라 이 나라에서 6살부터 14살까지의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인디아에서는 특히 초등교육

을 발전시키고있다.

이를 위해 이나정부는 초등교육개선을 위한 5개년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비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지난해에만도 830억 US\$를 교육비로 지출하였다. 이것은 2년전에 비해 2배나 늘어난것이고 있다. 정부는 공립학교에서 여러가지 조치들을 적극 취함으로써 학생등록률이 90%까지 끌어올렸다. 인디아의 학교들에서는 지난 시기의 넓은 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모를 박고 교육사업을 진행하고있다. 나라에 존재하고있는 빈부차

이는 새 세대들의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있다.

인디아에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자들의 대다수가 10학년이 이르지 못해 중퇴하고있다고 한다. 인디아정부는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고 그들에게 충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데 관심을 돌리고있다. 사회적으로 교원들을 우대하는 기풍을 세우며 교육부에서 온갖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현상을 없애기 위한 사업이 강화되고있다. 교육발전을 위한 인디아정부의 노력은 광범한 대중의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배금희

구 단배격받는 이스라엘

—중국의교부 대변인이 22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정착촌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역을 포함한 강점한 팔레스타인영토에서 유대인정착촌건설을 계속 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사이의 평화회담을 재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평화회담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것을 이스라엘당국에 요구하였다. —아랍국가행진이 22일 성

말페스타리나의 이슬람교향쟁운동(하마스)

대변인이 23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면서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을 계속 살해하고있다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스라엘당국의 계획적인 책동으로 비판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어떤 군사적공격으로도 팔레스타인민을 절대로 굴복시키지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라이의 다리

음흉한 속심은 가리울수 없다

요즘 미군부의 고위인물들이 아프가니스탄전쟁 미군철수에 대해 자주 입을 열어놓고있다. 얼마전 아프가니스탄에 행한 한 미국방관 회의에서 그는 오는 7월에 이 나라에서 미강점군철수를 시작할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거의 매를 같이하여 아프가니스탄전쟁 미군사관 페르사우스도 7월로 예정된 미군철수를 위해 여러 단계의 병력축감을 미군철수에게 제출한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여기에 발을 맞추어 미외교당국자들 비롯한 고위정책들도 아프가니스탄전쟁 미군철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무슨 민사 및 외교적수단으로 아프가니스탄정부의 능력을 높여 주어 이 나라 사람들이 자대로 살아가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주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있다. 그들의 주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적 및 《반테러》목적이 달성되었기때문에 방대한 미군부력이 여기서 특별히 할 일 없다는것이다.

말페스타리나의 이슬람교향쟁운동(하마스) 대변인이 23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면서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을 계속 살해하고있다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스라엘당국의 계획적인 책동으로 비판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어떤 군사적공격으로도 팔레스타인민을 절대로 굴복시키지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라이의 다리

라이의 다리

이것이 허사로 되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특별한 만성만 당하였다. 미국에서는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놓고 한심한 전쟁, 망신스러운 전쟁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견한 나라들에서도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반미감정이 날이 날이 높아지고있다. 민간인들을 목표로 한 미강점군의 무자비한 군사적공격으로 수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목숨을 잃고 유체절단자가 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은 사회적혼란과 무질서,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판 무장으로 변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미국을 침략자, 강점으로 비판하고 나라의 곳곳에서 미국을 반대하는 각종 투쟁을 벌리고있다. 최근에야 카불의 중심부에서 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미국에 죽음을 주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현실은 미국이 이전과 같이 무력충강의 방법으로 아프가니스탄을 《평정》하기가 어떻게 되었다는것을 보여 준다. 이로부터 미국이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부 무력행위를 저지시키는것을 통하여 저들이 침략자, 강점자 아니라는것을 인식시켜 이 나라에서 반미기운을 높여보자는것이다. 《안테로로 철수》를 진행함으로써 《반테러전》을 통해 저들이 국제적안전에 《기어》한다는 인상을 풍겨보자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행동은 하고있다. 아프가니스탄을 영원히 가라앉고 싶어서 미국의 검은 속심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